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現代, 도전과 시련

—

1993~2009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1993

현대정유로 제2의 창업

극동정유가 현대정유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현대’의 막내로서
국내 정유산업에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정유는 제2의 창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새롭게 바뀐 현대정유 대산공장 정문



현대 계동 사옥 앞에서 기념 촬영 중인 임직원들의 모습



본사로 승격된 대산공장에서 임직원들이 각오를 다졌다.

現代精油
HYUNDAI OIL REFINERY CO., LTD.

“ 지난 6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의 모든 경영을 현대그룹에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대정유로 다시 태어나는 일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 내자동 본사를 계동 현대빌딩으로 이전하였고 동시에 대산공장을 대산본사로 변경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마침내 상호를 현대정유로 변경함으로써 현대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정유가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정유업계의 선두자리에 오르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3년 8월, 대표이사 사장 심현영, 대표이사 부사장 정몽혁
임직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일뱅크(OILBANK) 브랜드를 도입한 주유소의 모습



1994

국내 최초 주유소 브랜드 도입
현대정유로 사명을 바꾼 지 1년, 주유소에 ‘오일뱅크(OILBANK)’라는 브랜드와 CI를 도입해 정유업계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원형으로 연결된 오일뱅크 심벌마크는 연속성, 무한성을 표현하며 최상의 에너지 공급, 신기술 개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상징했다.



▶
사진 왼쪽부터
임채원 부사장,
정몽혁 사장,
최화진 부사장



1995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 출범

현대정유는 판매망 확충을 위해 세일석유와 영진석유를 통합해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석유정제시설 20만 배럴 증설에 대비한 직·자영주유소 780개를 관할, 영업망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6

유조선 대산항 첫 입항

현대정유의 전용 유조선인 현대스타호가 원유 190만 배럴을 싣고 대산항에 첫 입항했다.





씨네드림 영화제

1994

다양한 마케팅 활동 강화

씨네드림 해변 영화제, 자동차 영화제, 그리고 주유소 방문 고객을 위한 KISS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마케팅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1995

카레이싱팀 창단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최초로 카레이싱팀 ‘오일뱅크’를 창단하고 후원했다. 오일뱅크팀은 창단 이후 5년 연속 한국모터챔피언십(KMRC)시리즈 정상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내 대표 레이싱팀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생산한 최첨단 제품을 레이싱팀에 적용해 큰 마케팅 효과도 거두었다.



1997 아이스하키팀 창단

우리나라 세 번째 실업 아이스하키팀 ‘오일뱅크스’를 창단했다. 창단 이후, 2000-2001 한국리그에서 우승했고, 아시안컵에서는 일본 및 중국 대표팀과 대등한 경기를 치르는 등 아이스하키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1997 JOYWHITE

현대정유는 젊고 참신한 기업 이미지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1997년 겨울,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시작된 아마추어 스키대회 ‘오일뱅크 조이화이트’가 대표적이었다.

1996

증설 및 인수를 통한 비약적 성장

1996년 5월 28일, 대산공장에 2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 설비를 증설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에 저유소를 확대 신설하고 1998년 대산공장 BTX 설비를 완공하며 석유화학분야에까지 보폭을 넓혔다. 또한 1999년 산업계 빅딜로 불리던 한화에너지 인수까지 성공하며 현대정유는 단숨에 업계 3위로 뛰어오르는 비약적 성장을 이뤄 냈다.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



1996

정몽혁 대표이사 사장 취임

정몽혁 부사장이 현대정유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공격 경영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정몽혁 사장의 취임과 함께 20만 배럴 공장 증설, 판매망 통합, 마케팅 강화 및 공격적인 주유소 유치를 이뤄 내며 극동정유 인수 3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원 흑자를 달성했다.

1996

주유소 1,000개 돌파

현대정유가 주유소를 1,020개로 늘리며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렸다. 1993년 435개에 불과하던 주유소를 3년 만에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주유소를 170개까지 확보하며 영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1996

2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 준공

공사 시작 2년 5개월 만에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증설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현대정유의 하루 원유처리량은 1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늘어났다. 대산공장 175만㎡(53만 평) 부지 위에 건설한 이 시설은 상압증류공정, 나프타개질공정, 등·경유탄황공정과 제품 입·출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현대정유의 20만 배럴 증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수급안정과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둘째는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정유는 앞으로도 하면 된다는 강인한 추진력과 창조적 예지, 그리고 적극적 의지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996년 5월, 20만 배럴 준공식, 정몽혁 사장 기념사에서



1996

전국 저유소 건설 박차

20만 배럴 규모 제2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전국의 물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저유소 건설이 시작됐다. 1996년 12만 배럴 규모의 강원도 옥계저유소를 시작으로 인천, 군산, 울산 등 약 260만 배럴 규모의 저유소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오늘에 이르는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8

BTX 설비 완공

대산공장에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벤젠과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BTX 공장이 준공됐다. 연간 생산능력 40만 톤 규모의 BTX 공장은 8만 6,000㎡(2만 6,000평)의 부지에 건설됐으며, 총 2,5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생산제품의 80%가량을 수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됐다.



1998 1,001마리 소떼 방북 지원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오른 방북길에 현대정유도 힘을 보탰다. 충남 서산농장을 출발한 50대의 북송 차량에 경유 100드럼을 지원했고, 같은 해 10월 이뤄진 2차 방북에도 현대정유의 기름을 실은 차량이 501마리의 소떼와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소떼를 끄는 모습



◀ 개성주유소(사진 왼쪽)와 한누리개성주유소(사진 오른쪽)

1998 북한 진출 1호 주유소, 금강산주유소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북한 금강산 관광단지에 주유소를 건설해 유류공급을 시작했다. 금강산주유소는 장전항과 금강산을 왕복하는 관광버스, 업무용 차량 및 관광단지 내 각종 편의시설에 연료를 공급했다. 2004년 개성공단에 개성주유소를 건설해 2008년까지 운영했고, 2008년에 한누리개성주유소를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인천 한화에너지공장 전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식

1999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프라자 인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하에 5대 그룹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는 빅딜 과정에서 현대정유가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했다. 한화의 정유와 유통부문을 인수한 현대정유는 12%대의 시장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업계 3위에 올라섰고 정제능력도 58만 5,000배럴까지 늘려 업계 2위인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를 바짝 추격하였다.

“우리 현대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지난 52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늘의 현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현대정유도 한화에너지 인수를 계기로
세계 메이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초일류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한화에너지의 성공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9년 7월, 정몽혁 사장 창립 기념사에서

2000

외자유치 및 現代 계열 분리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현대그룹은 5대 핵심업종에 주력하고 79개 계열사 중 53개사를 계열분리, 합작·합병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현대정유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IPIC社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성사시켰고,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IPIC社와 합작 체결식



합작 축하 리셉션장에서의 모습

“ We at the Hyundai Group see the most promising future for this joint venture. We know that it will become a model for cooperation between two companies, and a model for the building of ties between an oil-producing country and an oil-importing country. We know that this partnership, Hyundai Oil, will be and remain one of the great refinery companies of the world, to the enduring benefit of its partners, and to the lasting credit of all who are present here today.”

1999년 11월, 합작 축하 리셉션, 정몽혁 사장 인사말에서

“ 현대그룹은 이번 합작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본 합작사업은 양사의 사업협력을 넘어 산유국-수입국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정유는 파트너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세계적인 정유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00 다양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현대정유는 한솔CSN, 삼성카드, 한빛은행 등 여러 기업들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한솔CSN, 삼성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는 모습



2002년 취임한 서영태 대표이사 사장의 모습

2002 현대오일뱅크로 사명 변경

합작사인 IPIC가 추가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에 본격 참여하게 됐으며, 서영태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사명을 ‘현대정유’에서 ‘현대오일뱅크’로 변경, 최고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고객지향적인 정유회사로 변신할 것을 다짐했다.



2003 北에 첫 육로 수송

국내 정유사 최초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수송했다.
1998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지원에 참여했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대북 관련 유류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2004 청정연료설비(CFP) 기공식

현대오일뱅크는 총 2,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6만 배럴의 초저유황 경유탈황시설과
하루 2만 배럴의 휘발유탈황시설, 시간당 4만 5,000㎥ 생산 규모의 수소제조공정을 건설했다.
청정연료설비 건설을 시작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친환경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2005

대산단지 납사배관 준공

대산공단 내 정유·석유화학 5개社가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공동 나프타·수소 이송 배관’을 준공, 물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07

성남기술지원센터 개소

제품 품질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시료를 72시간 이내로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

2007

비전 2012 선포식

국내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석유정제 및 마케팅 회사를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런투유(Run to U)’ 슬로건은 모든 자산을 업그레이드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9

일본 코스모석유와 전략적 MOU 체결

일본의 대표적인 정유회사 코스모석유와 정유사업 전반의 전략적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수출 협력과 기술 노하우 교환, 마케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제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 제휴를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한 단계 높은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Monument 2

돌아온 사훈석



돌아온 사훈석과 함께
잊었던 우리의 꿈을 마음에 새깁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사훈석,
현대정신을 되새기다

10년 만에 사훈석이 돌아왔다. 1997년 현대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대산공장 앞마당에 세워진 사훈석. 무게 6톤, 가로 2m, 세로 1m, 둘레 5.7m 크기의 이 사훈석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쓴 현대그룹 사훈을 탁본해 제작한 것이다. <근면, 검소, 친애>는 대산공장 앞마당을 든든히 지키며 현대 가족으로서 직원들의 소속감과 현대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고, 외국계 대주주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훈석은 자취를 감췄다. 임직원들은 경영권 교체로 버려진 줄만 알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사훈석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현대중공업이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아 오면서 사라졌던 사훈석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훈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김태경 노조위원장의 남모를 노력이 숨어 있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과 사훈석

외국계로 경영권이 넘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사훈석을 노조위원장이 사비를 털어 밤새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았던 것. 현대중공업이 다시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아 오자 그 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던 사훈석을 회사에 기증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비록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갔어도 회사의 뿌리인 현대 사훈석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사훈석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돌아온 現代의 품, 그리고 사훈석. 직원들은 현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꿈을 향한 힘찬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